

지역 매아리

정읍시, 하수관로·중계펌프장 설치

정읍시가 신외면 옹골리 이치마을과 철보면 사산리 북호마을에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를 설치한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12km와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 30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그동안 개인 정화조에서 발생된 악취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주민의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지역의 하수를 적정처리해 수질이 개선되고 공중위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하수관로설치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해 지난 13일 하수관로설치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는 사업 추진 중에 예상되는 민원 발생의 최소화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 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의회, '정읍시의회 동학 농민혁명 건의문'에 강력 반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8일 건의문을 통해 정읍시의회가 대통령 등에게 제출한 건의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무장기포가 아닌 고부봉기이며, 무장기포라고 서술한 교과서는 왜곡된 역사'라는 주장을 억지 논리이며, 역사적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역사의 진실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정읍시의회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종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며, 역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고부 농민 봉기는 1894년 1월 탐관오리인 조병갑의 수탈과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며, "정읍시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사발통문은 이에 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문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기록된 내용 또한 고부봉기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하여도 학계의 해석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는 정읍시의회의 주장이 역사의 왜곡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예비 창업자들, 모여라!”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3년 연속 창업 우수대학 전국 1위 수상 대학 내 창업동아리·캠프·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가 대한민국 전문대학창업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학창업지수는 한국창업보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등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대학창업지수를 평가한 결과다.

전북과학대학교가 전문대학 종합 1위에 선정, 지난 14일 서울 매일경제신문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했다.

대학창업지수평가 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247개)과 전문대학(170개)을 대상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각 대학의 창업 인프라와 지원현황, 창업성과 자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보육협회의 공시된 자료, 대학 설문 등을 평가 검증 지표로 삼았다.

평가는 창업인프라 30점(창업전담 조직 유무, 창업 지원 공간 확보, 창업 동아리 수, 창업 강좌 수 등), 창업지원 25점(창업 강좌 수강 인원, 교내의 창업 지원 예

산 등), 창업성과 45점(교원 신규 창업자, 교원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학생 신규 창업자, 학생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일반인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등) 3개 부문 100점과 대학 경영진의 창업활동 참여실적 3점을 포함해 총 103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전북과학대학교는 82.8점을 받았다.

황인창 총장은 "취임하면서 전북과학대학교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는데 집중한다는 목표로 대학 내 창업 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창업 지원을 넘어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에게도 공간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3년 연속 전문대학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북과학대학교는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읍시로부터 창업운영비를 지원받아 창업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학생창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한수 창업보육센터장은 "올해는 학생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JBSC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우수 창업아이템과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왕술밭 공동체 정원, 문화조성 공간 역할 '특목'

정읍시 내장상동에 위치한 도심 속 텃밭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총면적 6281㎡의 왕술밭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공동체 정원에는 텃밭 가족들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텃밭과 어린이 놀이터, 야외 교육장, 원두막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텃밭을 개장하고 시민들에게 농사 체험의 기회와 가족이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50여 개의 텃밭을 분양했다.

이후 시는 텃밭 경작자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를 초빙, 농작물 재배 시기와 재배작물, 비료사용법 등

정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들은 영농교육을 토대로 가족들과 함께 텃밭에 가지와 상추, 부추, 파,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시민들은 그동안 열심 기근 작물을 이웃 주민과 나누고 교류하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텃밭 가족들은 공동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도심 속 텃밭에서 농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기 무상점검 실시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이 18일 전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보조기기센터)와 함께 이용장애인의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점검했다.

무상 점검은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1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무상 보조기기의 점검과 경 정비, 다양한 최신 보조기기의 전시와 직접적인 체험, 개인 맞춤형 상담과 평가가 진행됐다.

전동 휠체어를 정비받은 장애인은 "팔걸이가 고장 나서 불편했는데 튼튼하게 고쳐줘 한시름 놓인다"며 "도움을 주신 장애인복지관과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 고맙다"고 전했다.

보조기기센터는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무상점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경제 살리GO 할인도 반GO

부안군, 13개 금융기관과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부안군이 부안사랑상품권 7월 출시를 앞두고 18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내 13개 금융기관과 부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부안군지부, 부안농협, 부안중앙농협, 계화농협, 남부안농협, 변산농협, 하서농협, 전북은행부안지점, 고창부안축협부안지점, 부령새마을금고, 남부안새마을금고, 부안신협, 부안신협조합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부안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은 부안사랑상품권의 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각 지점에서 부안사랑상품권을 평상시에 5%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기대한다"며 "함께한 금융기관에서도 부안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확산과 판매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안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류로 유통할 계획이다. 정읍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부안군청 미래전략 담당관(지리경제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경찰서, 음주·숙취운전 근절 자정분위기 조성 간담회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운창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정지 : 0.03%~0.039%, 취소 : 0.10%~0.089%)에 따른 숙취운전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 직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숙취운전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불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운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된 법안으로서 오는 6.25(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후 낮아진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청문감사실에서는 운창호법 시행에 맞춰 일정기간 숙취운전 점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과도한 음주는 다음날 출근 길 음주운전으로 이어짐은 물론 폭행·사비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출근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숙취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은 음주운전 단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른 숙취운전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 직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속기관으로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경찰관 발생 시 사회적 비난 집중 및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은 지양한다"며 "고창

경찰은 단 한번의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